

만리장성 넘어야 금 보인다



‘중국 안방에서 만리장성을 허무는 기적을 일으켜라’

한국 남자탁구가 16일 2008 베이징올림픽 탁구 남자 단체전 준결승에서 세계 최강 중국과 결승행 티켓을 건 외나무 다리 대결을 벌인다.

객관적인 전력에선 중국의 압도적인 우세여서 만리장성 뛰어넘기는 어려워 보인다.

중국은 올해 광주 세계선수권대회(단체전) 우승으로 대회 4연패를 달성했고 올림픽 전초전으로 치러졌던 중국오픈과 일본오픈을 석권했다.

세계 최강자 왕하오와 2위 마린, 4위 왕리친이 출격해 막강 전력을 과시한다.

남자 단체전, 오늘 중국과 준결승전

유승민·오상은에 왕리친 격파 특명

한국 남자가 중국을 단체전에서 이긴 건 1996년 싱가포르 아시아선수권대회 마지막이다. 아시안게임에선 남자 대표팀 코치인 유남규가 예시였던 1986년 서울 대회와 1990년 베이징 대회에서 잇따라 중국을 꺾고 우승한 적이 있다.

최근 세계선수권에서는 2006년 브레멘 대회와 올해 광주 대회 때 중국과 결승 대결에서 잇따라 무릎을 꿇었다. 한국의 세계선수권 최고 성적이 준우승일 만큼

중국의 벽은 높았다.

‘녹색 테이블 반란’을 노리는 유승민(삼성생명)과 오상은(KT&G), 윤재영(상무)이 중국과 4강 맞대결에 결연한 각오로 임할 수밖에 없다.

유남규 코치의 중국 격파 전략의 핵심은 기선 제압. 유승민과 오상은을 1단식이나 2단식에 내세워 한 게임 이상 잡으면 일단 성공이다.

중국의 가장 약한 고리는 세 차례(2001, 2005, 2007년) 세계선수권대회를 제패했던 왕리친으로 왕년의 세계 챔피언 명성에도 적지 않은 나이 탓에 쇠락기에 접어든 상태다.

유승민과 오상은이 왕리친을 꺾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

유승민은 왕리친과 상대전적 4승8패로 뒤져 있지만 지난해 월드컵 준결승 4-2 승리를 포함해 최근 2승을 달렸다. 오상은은 2005 세계선수권대회 준결승 패배 등 6전 전패로 열세지만 왕리친과 박빙의 승부를 했다.

또 유승민이 상대전적 2승16패로 눌러있는 왕하오와 예시 대결에서 설욕하겠다고 버리고 있다. 특히 왕하오는 단식에서 도 8강 대결이 예상되는 만큼 유승민은 기선 제압을 위해 단체전 승리가 필요하다.



16일 탁구 남자 단체전 준결승에서 세계 최강 중국과 결승행 티켓을 건 외나무 다리 대결을 벌이는 유승민과 윤재영, 오상은(왼쪽부터) /연합뉴스



마장마술 최준상 ‘영광의 꿀찌’

(광주 출신)

한국 승마 선수로는 유일하게 2008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한 마장마술의 광주 출신 최준상(30·삼성전자승마단·사진)이 결국 1차 예선에 참가한 선수중 최하위에 그쳐 일찌감치 대회를 마감했다.

최준상은 15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홍콩 사틴 승마경기장에서 끝난 마장마술 개인전 1차 예선 이틀째 경기결과 출전 선수 47명 중 46위에 랭크됐다. 한 선수가 중도 포기해 경기를 마친 선수 중에서는 최준상이 꼴찌인 셈이다.

스위스에서 태어난 13세 거세마 ‘첸토’를 타고 전날 경기를 치른 최준상의 성적

은 57.333%. 이번 대회 마장마술 개인전은 총 47명이 참가해 1차 예선을 벌인 뒤 상위 25명만 2차 예선에 출전한다.

최준상은 2002년 부산,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2회 연속 개인전과 단체전 2관왕을 차지한 아시아 정상급 선수지만 세계의 벽을 넘기엔 역부족이었다.

한국 마장마술 사상 자력으로는 처음으로 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한 최준상은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기 위해 지난 1년간 무리하게 대회에 출전하다 보니 컨디션 조절에 실패한 것 같다”면서 “그러나 최선

승마 선수론 베이징 참가 유일

1차 예선 참가 선수중 최하위

을 다해 경기를 치른 만큼 아쉬움은 없다. 불모지나 다름없는 마장마술에서 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것만으로도 영광이다. 새로 시작하는 각오로 다음 올림픽을 겨냥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장마술 단체전에서는 독일이 72.917%의 점수로 네덜란드(71.750%), 덴마크(68.875%)를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승마 강국 독일은 이번 대회 종합 마술 개인전과 단체전에 이어 마장마술 단체전까지 금메달을 싹쓸이 하며 초강세를 보였다.

쿠바·중국 ‘승부치기’ 승

연장 11회 美·대만 꺾어



아마야구 최강 쿠바가 2008 베이징올림픽에 처음으로 도입된 ‘승부치기’에서 미국을 꺾고 3연승을

달렸다. 쿠바는 15일 베이징 우커송야구장에서 열린 미국과 풀리그 3차전에서 3-3으로 맞선 연장 11회 초 승부치기에서 번트에 이은 적시타로 2점을 뽑아 5-3으로 이겼다.

이로써 쿠바는 일본, 캐나다를 꺾은 데 이어 3연승해 선두로 올라섰다.

쿠바는 10회까지 3-3으로 승부가 갈리지 않자 11회부터 적용된 승부치기 규정에 따라 8번과 9번 타자를 1, 2루에 놓고 1번 타자 지오비스 두베르겔부터 공격을 풀어가는 작전을 택했다. 쿠바는 두베르겔의 번트 성공으로

착실하게 1사 2, 3루를 만든 뒤 2번 마이를 엔리케스의 우전 안타로 2점을 올리는 데 성공했다.

미국도 이어진 공격에서 9번과 1번 타자를 1, 2루에 놓고 번트로 1사 2, 3루를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했다. 그러나 미국은 3번 테리 티피가 중견수 플라이트로 3루 주자 제이슨 도날드를 불러들여 5-4까지 점수차를 좁혔지만 4번 맷 브라운이 포수 파울플라이로 몰려나 허무하게 경기를 끝내야 했다.

앞서 우커송야구장 제2필드에서 열린 중국-대만전에서는 대회 처음으로 나온 승부치기에서 12회말 5점을 뽑은 중국이 대만을 8-7로 꺾고 1승1패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 처음으로 적용된 ‘승부치기’ 규정은 양 팀이 10회말까지 점수를 뽑지 못할 경우 11회초부터 무사 1, 2루에 주자를 내보내고 원하는 타순부터 공격을 시작하도록 하고 있다.



올림픽 소식

축구 스타 베컴 폐막식 출연

‘티베트 독립’ 서양인 출구명령

○중국 공안은 15일 티베트 독립을 주장하는 서양인 시위대 5명을 적발해 곧바로 중국에서 출국할 것을 명령.

이번에 출구명령을 받은 외국인인 미국인 3명과 캐나다인 1명, 영국인 1명 등 모두 5명으로 관광비자로 중국에 입국.

이에 앞서 뉴욕에 본부를 둔 ‘자유 티베트’를 위한 학생들 회원 8명은 13일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 남단 공원에서 티베트 독립을 촉구하는 시위.

독일 선수 4명 ‘우리도 벗었다’

○독일 여자하키 대표로 2008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한 카타리나 슐츠(25) 등 선수 4명이 성인 월드컵이 9월호 독일판에 나왔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 보도.

누드사진을 찍은 주인공들은 슐츠 외에 유도대표 로미 타란겔(20), 카누의 니콜라인하르트(22), 요트 페트라 니만(30)으로 슐츠는 14일 미국과 예선 경기에서 4-2로 이긴 뒤 인터뷰에서 “아무나 플레이보이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 몸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촬영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日 수영영웅 기자타마 은퇴 시사

○남자 평영에서 2회 연속 올림픽 2관왕을 차지한 일본 수영의 영웅 기자타마 고스케(26)가 2008 베이징올림픽을 끝으로 현역에서 물러날 뜻을 전했다. 일본 언론이 보도.

메달 팽개친 레슬링 선수 징계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메달을 팽개친 스웨덴 레슬링 선수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징계.

2004 아테네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아르라미안은 14일 열린 준결승에서 안드레아 미구치(이탈리아)에게 패한 뒤 소리를 지르며 심판 판정에 항의했고 만류하는 코칭스태프들을 뿌리치는 등 소동을 벌였으며 패자 부활전에서 동메달을 땀지만 메달을 매트에 던진 뒤 나가버려 관중의 야유.

빨강색 버스서 축구공 찰 듯

○유명 축구 선수인 데이비드 베컴(33)이 24일 열리는 베이징올림픽 폐막식에 출연할 예정이라고 BBC 방송 등이 15일 보도.

언론들은 폐막식에서 자크 로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2012년 올림픽 개최 도시인 런던의 보리스 존슨 시장에게 올림픽기를 건넬 때 베컴이 그 옆에 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

베컴은 또 런던시가 준비한 8분 분량의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되는 동안 런던의 명물인 빨강색 2층버스 2층에 서서 관중을 향해 축구공을 찰 예정.

브라질 사상 첫 우승할까

오늘부터 남자축구 8강 ... 아르헨·이탈리아와 3파전



‘브라질의 첫 우승이나, 아르헨티나의 수성이나, 이탈리아의 72년 만에 정상 탈환이나’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 축구 8강전이 16일 일제히 열리는 가운데 어느 나라가 금메달을 차지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강은 브라질-카메룬, 아르헨티나-네덜란드, 이탈리아-벨기에, 나이지리아-코트디부아르 대결로 압축된 상태.

대회와 1988년 서울 대회에서 잇따라 준우승한 게 최고 성적.

출전 사상 첫 정상 정복을 위해 브라질은 A대표팀 ‘간판’ 호나우지뉴(AC 밀란)가 와일드카드로 출전했고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디에구(베르더 브레멘)와 라피나(살게04)도 구단 반대를 무릅쓰고 베이징행을 감행했다. 브라질은 유력 금메달 후보답게 조별리그에서도 돋보인 성적표를 보여줬다.

C조에 편성된 브라질은 벨기에를 1-0, 중국을 3-0, 뉴질랜드를 5-0으로 꺾고 3연승 행진으로 8강에 직행했다. 단 1점도 내주지 않아 16개 참가국 중 골득실치 +9로 최고다.

아르헨티나의 간판 스트라이커 리오넬 메시는 소속 구단 FC 바르셀로나의 출전 불허 방침을 무시하고 올림픽에 참가했다. A조에 속했던 아르헨티나는 코트디부아르를 2-1로 꺾는 등 3전 전승으로 8강에 합류했다. 8강 상대인 네덜란드는 B조에서 1승2무를 기록해 조 2위(골득실 +1)로 조별리그 관문을 통과해 아르헨티나 적수로는 약해 보인다.

이탈리아는 벨기에를 꺾고 4강에 올라 1936년 베를린 대회 우승을 재현한다는 목표다. 아프리카의 강호 나이지리아와 북경 코트디부아르도 4강 길목에서 맞붙는다.

금메달 경쟁이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6위 브라질과 7위 아르헨티나, 3위 이탈리아의 3파전 양상을 띠는 가운데 어느 나라 국가가 올릴지 주목된다.

‘인간탄환’ 3인방 출발 순조

볼트·파월·게이 예선 통과

베이징올림픽에서 인간 탄환 대결을 벌일 우사인 볼트(22), 아사과 파월(26·이상 자메이카), 타이슨 게이(26·미국) 3인방이 순조롭게 출발했다. 이 부문 세계기록(9초72) 보유자 볼트는 15일 주경기장 ‘취자티위장’(國家體育場)에서 시작한 남자 육상 100m 예선 1조에서 10초20을 뛰며 1위로 2회전에 올랐다. 종전 세계기록(9초74)을 보유한 파월도 2조에서 10초16으로 1위를 차지했고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 게이는 10초22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예선이었기에 이들은 힘을 비축하고 트랙 적응에 보다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볼트는 스타트반응 속도가 0.186초로 같이 뛴 8명 중 4번째에 불과했으나 폭발적인 스피드로 금세 선두로 치고 나갔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격동한 칼 루이스(미국)-벤 존슨(캐나다) 대결 이후 가장 재미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남자 100m 결승전은 16일 밤 10시30분 열린다.

오늘의 올림픽

◇16일(한국시간)

▲배드민턴 = 여자단식, 남자복식 결승(11시·베이징공과대 체육관) ▲야구 = 한국-일본(20시·우커송 야구장) ▲복싱 = 51kg급, 75kg급(14시30분·베이징 노동자 체육관) ▲핸드볼 = 남자부 한국-이집트(11시45분·올림픽 스포츠센터 체육관) ▲하키 = 여자부 한국-중국(19시30분·올림픽관 하키경기장) ▲요트 = 남자 RSX급(14시·칭다오 올림픽요트센터) ▲수영 = 배영 200m 결승 등(11시·국가야구아티센터) ▲탁구 = 남녀 단체전(11시·베이징대 체육관) ▲역도 = 75kg 이상급(20시·베이징 항공항천대) ▲레슬링 = 여자 자유형 48kg급(10시30분·중국농업

대 체육관)

◇17일(한국시간)

▲사격 = 50m 소총 3자세(10시·베이징 사격장) ▲육상 = 여자마라톤결승(08시30분·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 ▲하키 = 남자부 한국-벨기에(11시30분 올림픽관 하키필드) ▲요트 = 레이저-1인승 경기(14시·칭다오 올림픽 세일링 센터) ▲농구 = 여자부 한국-라트비아(15시30분·베이징 올림픽 농구장) ▲핸드볼 = 여자부 한국-헝가리(09시45분·올림픽 스포츠센터 체육관) ▲수영 = 남자 자유형 1500m 결승(11시09분·국가야구아티센터) ▲배드민턴 = 혼합복식 결승(20시30분·베이징공과대 체육관) ▲체조 = 남자 기계 체조 마루 결승(17시·국립 실내 체육관)